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

오늘 복음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았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루카 24,41)

제자들은 성경을 잘 몰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곧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야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수난당하셨고,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면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박은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오해 되었습니다.

---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믿음의 깊이는 예수님에 대한 앎의 깊이 만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그만큼 신뢰하게 됩니다. 믿을 수 있을 만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속고, 사기를 당하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내 돈을 불러줄 것이라고, 내 사업을 성장시켜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속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믿게 되었는데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앞으로 차지하게 될 영광스런 자리를 탐내다 다툼을 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용한 의사 정도로만 알고 몰려들었던 고향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어보아야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정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보아야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안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내 신앙의 깊이, 내 믿음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요? 더 깊은 믿음, 더 굳센 믿음은 더 깊이 제대로 알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면 따르게 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딱 그만큼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복음은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한 사도들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비로소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분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가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양 본당 양호준 델피노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이르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해야 한다고 당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에 대한 선포 의무를 마음에 새기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131번 ‘찬미 노래 드리자’

### 본기도

†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사도행전 3장 13절-15절, 17절-19절

**안 내** : 베드로는 백성에게,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다고 전합니다.

**묵 상** : 이천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처럼, 우리도 무지한 탐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써 주님께 돌아와, 주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답송** : ◎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 제2독서 : 요한 1서 2장 1절-5절

**안 내** :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고 전합니다.

**묵 상** :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탓하지 않고 도리어 하느님께 변호해 주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을 위해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회개와 감사와 계명의 실천으로 응답을 드려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

**복 음 : 루카 24장 35절-48절**

**강 론 :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1-2쪽)**

**예물준비성가 : 511번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500번 '평화의 하느님'**

**영성체 후 묵상**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사 하십니다.

의심을 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침묵>

예수님께 청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저희가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회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계명의 실천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소서.

**공지사항**

**파견성가 :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 공소사목 성금**

이점옥님

50,000원

이난희님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11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림

###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천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 교구 사제연수

- 일시 : 4월 16(월) 14:30 - 18일(수)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미사준비, 성무일도, 세면도구

### ■ 2018년 안동교구 성소주일 행사

- 주제 : “내가 너와 함께 있다.”(예레 1.8)
- 일시 : 4월 22일(주일) 09:30 - 17: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초·중·고·대학생 및 청년들
- 준비물 : 미사준비, 점심도시락, 돗자리, 식수, 명찰(달고 오기)

### ■ 2018년 2차 가나혼인강좌 (혼인 전 교리교육)

- 일시 : 5월 19일(토) 13:00 - 18:00
- 장소 : 교구청
- 참가비 : 2만원(1인 1만원)
- 대상 : 혼인을 준비 중인 남녀 (함께 참석해야 함)
- 신청 : 5월 15일(화)까지 사목국으로(858-3114~5)

###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4월 15일(부활 제3주일) : 신기동 본당 (견진성사)
- 4월 29일(부활 제5주일) : 개운동 본당 (견진성사)

### ■ 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4월 16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4월 23일(월) 20:3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심요섭 요셉(마산교구)

###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일시 : 4월 27일(금)19:00 - 29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대상 : 미혼남녀, 사제, 수도자, 신혼부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약간의 간식, 미사준비
- 참가비 : 90,000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 교구청 ‘성모의 밤’

- 일시 : 5월 1일(화) 19:00 - 21:30
- 장소 : 교구청 잔디 광장 및 성모동산
- 주최·주관 : 안동교구 여성연합회
- 대상 : 누구나 참석 가능
- 구성 : 목주기도, 미사, 작은 음악회
- 준비물 : 깔개, 겹옷, 미사 준비
- 기도지향 : 교구 50주년을 맞이한 안동 교구를 위하여
- 방법 : 미사, 목주기도 등 다양한 기도를 본당별로 성모님께 봉헌(본당 여성단체 대표 4월 30일까지 수합)

### ■ 생명환경연대 봄철 생태기행

- 일시 : 5월 12일(토)
- 장소 : 백두대간 낙동강 세평 비경길 (승부역 - 부천역 구간)
- 대상 : 안동교구 생명환경연대 회원 및 함께 걷고 싶은 분  
5월 6일까지 전착순 120명
- 문의 : 안동 마명락 010-6300-1711  
북부 정장훈 010-3827-2275  
문경 안창수 010-8361-2087  
상주 윤병권 010-7488-7564
- 참가비 : 1인 20,000원(중식은 개인 준비)

###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울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 4월 21일(토) 14:00
- 장소 : 서울 개화동 수도원
- 대상 :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 문의 :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 ■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4월 21일(토) 14:00  
4월 22일(주일) 10:00, 14:00
- 장소 : 부산 본원 및 원하는 장소
- 문의 : 010-9319-1690

### ■ 한국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대상 :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 문의 : 김낙윤 신부 010-2730-8691 kmsvocation@daum.net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7장

#### 자녀 교육의 강화

##### 인내하는 현실주의

273. 우리가 자녀에게 가치관을 제시할 때, 자녀의 나이와 현실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방법들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심리학과 교육학의 중요한 연구들에 따르면 자녀의 행동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또한 자유에는 지도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유가 저절로 성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유는 유한하고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절대적인 자발성으로 선을 선택하는 순수한 능력이 아닙니다. ‘자발적’ 행동과 ‘자유로운’ 행동은 늘 올바르게 구분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욕망에 따라 어떤 악한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망의 원인은 거부할 수 없는 열망이나 나쁜 교육입니다. 이 경우에, 이러한 결정은 완전히 자발적인 것으로 자신의 욕망이 지향하는 것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습 약물 중독자들에게서 이러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중독자들이 아무리 고치고 싶어도, 완전히 고치고 싶어도,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그 상황에서 어떠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결정은 자발적이지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선택할 수 없고 그들이 약물에 노출되면 약물 중독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이의 도움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 교육 환경인 가정생활

274. 가정은 인간적 가치관을 배우는 첫 학교로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린 시절에 생겨난 성향이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스며들어 평생 이어지며 특정한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거나 특정한 행동 방식에

---

대하여 즉각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마치 삼투 현상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들이 배워 온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해지는 특정한 메시지들을 비판적으로 식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텔레비전의 일부 방송이나 광고들은 가정생활에 심어져 있는 가치들에 자주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가치들을 약화시킵니다.

275. 스트레스와 빠른 기술 발전에 지배당하는 우리 시대에,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다리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이 전자 기기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방식들을 식별하고 디지털 속도가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제는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충족을 늦추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면 분별없는 사람이 되고, 자신들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에 집착하게 되며,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악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는 커다란 허상으로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뒤로 미루고 적절한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면, 충동이 일어날 때에 자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의 자존감이 커집니다. 또한 이는 자녀에게 다른 이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는 자녀에게 성인처럼 행동하라는 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자유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전한 가정에서 이러한 배움의 과정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통한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76. 가정은 으뜸가는 사회화의 자리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처음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고,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나누고, 견디어 내고, 존중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과제는 우리가 세상과 사회도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가정이라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친밀함과 배려와 환대를 배웁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험한 이기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보이고 친절을 베풀며 사랑해야 할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회적 유대는 이러한 일상적이며 소소한 일차적인 차원, 곧 이웃과 가까이 함께하는 것 없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루의 특정 시간에 길에서 마주치는 것, 모두에게 관련된 문제를 함께 걱정하는 것,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서로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날마다 생각해 내야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 소확행

신효원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달포 전에 TV에서 ‘소확행 하십니까?’라는 프로를 한 주간 동안 방영했다. 내 손으로 황토집을 짓는 부부, 골동품 수집가, 천연염색과 효소나 된장 담그기에 푹 빠진 이들, 집보다 캠핑카에서 보내는 날이 더 많은 부부가 소개되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자연을 가까이 하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보였다.

소확행(小確幸)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한다. 이 말을 유행시킨 일본 소설가 하루키는 예쁜 꽃을 사서 집을 구미는 모습,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잠시 조는 순간, 욕조에 몸을 담그고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을 때의 감정 등을 소확행의 예로 들었다. 소소한 일상에서 얻는 즐거움이다.

올해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핀란드가 1위를 차지했다. 그들은 행복의 조건으로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기와 일 년 중 한 달을 호숫가에 머물기를 앞자리에 두었다. 굳이 남과 겨루려하지 않고 고요한 내면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모양이다.

우리나라는 57위다. 우리의 행복조건에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을까? 한때 “부자 되세요.”, “대박나세요.”라는 인사말이 유행을 하더니 참 이상한 장사꾼을 대통령으로 뽑기까지 했다. 여전히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부귀영화와 입신양명이 절대가치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교육이 오로지 공부 선수 만들기에 급급했던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행복한가?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위다.

봄이다. 어느새 바람이 서늘하고 부드러워졌다. 남도에 꽃소식이 요란하더니 어느새 여기도 산수유가 피어난다. 단풍은 천천한 걸음으로 내려오던데 봄꽃은 바람을 타고 달려오는 모양이다. 이 화려한, 그래서 꿈같이 사라질 봄날을 위하여 나의 소확행을 찾아야겠다.

우선 다른 이의 시선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만남도 얼마나 편할까.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잘 쓰면 좋겠다. 더 이상 시간의 도적이 되어서는 안 될 일.

올봄에는 마당 한쪽에 아궁이를 만들고 가마솥을 걸려고 한다. 해질녘 불을 지피고 불빛을 오래 지켜보고 싶다. 가을에 메주콩이라도 쭈다 김 서린 콩을 입에 넣으면 어릴 적 입맛이 살아올지 모를 일.

천지에 꽃난리가 나더라도 올해는 멀리 꽃구경 나서기보다 집안에 피는 꽃들을 눈여겨봐야겠다. 매화도 오래 보고 목련도 자세히 보고. 그래도 벚꽃이 절정인 날은 그 거리로 나가야지. 벚꽃엔딩에 설레며 견노라면 한 삼십 년 젊어질지도 모를 일.

“행복하세요.” 헤어질 때 인사를 늘 그렇게 하는 이가 있다. 자주 듣다보니 그의 진심이 느껴지고 행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올봄을 잘 보낸 뒤 나도 마지막 인사를 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소확행하세요.”